

보도 일시	2022.3.23.(수) 조간 2022.3.22.(화) 11:00	배포 일시	2022. 3. 22.(화) 06:00
담당 부서 <총괄>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정준호 (044-200-5870)
		담당자	서기관 김정식 (044-200-5878)

호미곶 등대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

- 제15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항로표지공학회 정기회의에서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가 주관하는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하고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개의 등대를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프랑스 ‘코루두앙 등대(2019년)’, 브라질 ‘산토 안토니오 다 바라 등대(2020년)’ 그리고, 호주 ‘케이프 바이런 등대(2021년)’가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후보지로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항로표지공학회에 추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90개 회원국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항로표지공학회는 등대의 역사성,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우리 ‘호미곶 등대’를 포함해 최종 후보 3곳을 선정하였고, 2월 28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열린 제15차 정기회의에서 ‘호미곶 등대’를 2022년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사실상 확정하였다.

1908년 건축된 ‘호미곶 등대’는 다른 회원국들이 신청한 등대들보다 역사는 짧으나, 건축적 특성, 보존 상태, 그리고 예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 9층 정도의 높은 높이에도 불구하고 2중 튜브 구조 설계를 적용해

지진과 해풍에도 손상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의 정교한 박공지붕과 오얏꽃 문양 천장 장식으로 예술성 또한 높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올해 6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75회 이사회에서 ‘호미곶 등대’를 ‘올해의 세계등대유산’으로 공식 발표하고 누리집 (www.iala-aism.org) 등을 통해 후속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7월 1일) 기념식, 등대문화유산 세미나 등 세계등대유산 선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7월 재개관하는 등대박물관 등을 활용해 특별전시회, 등대문화유산 탐방 및 교육, ‘등대 도장 찍기 여행’ 시즌 3(재미있는 등대)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등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건설 당시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건축물이자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또한 높다.”라며, “이번 ‘호미곶 등대’의 세계등대유산 선정을 계기로 우리 등대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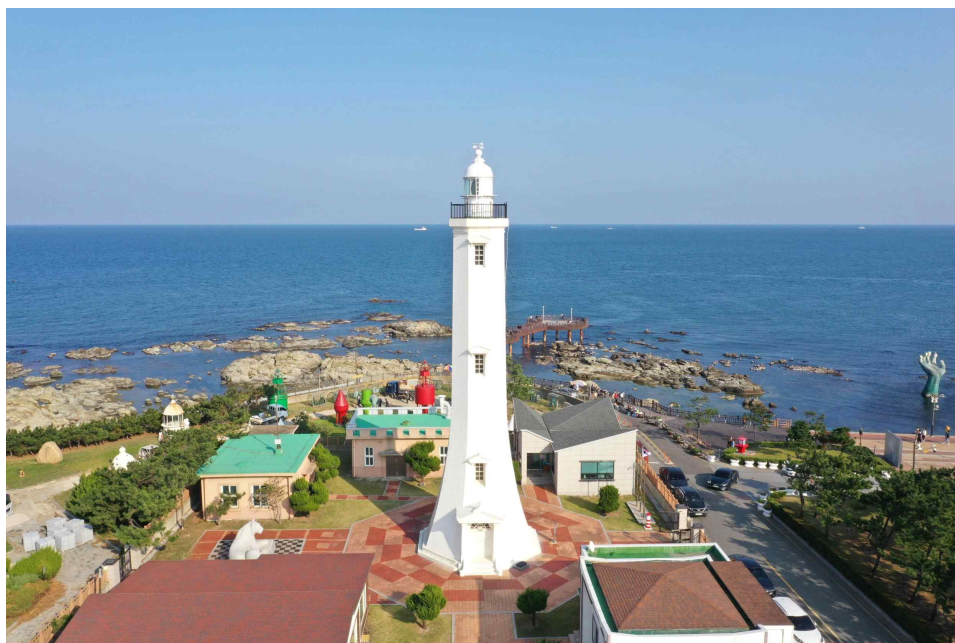
참고 1

IALA 올해의 세계등대유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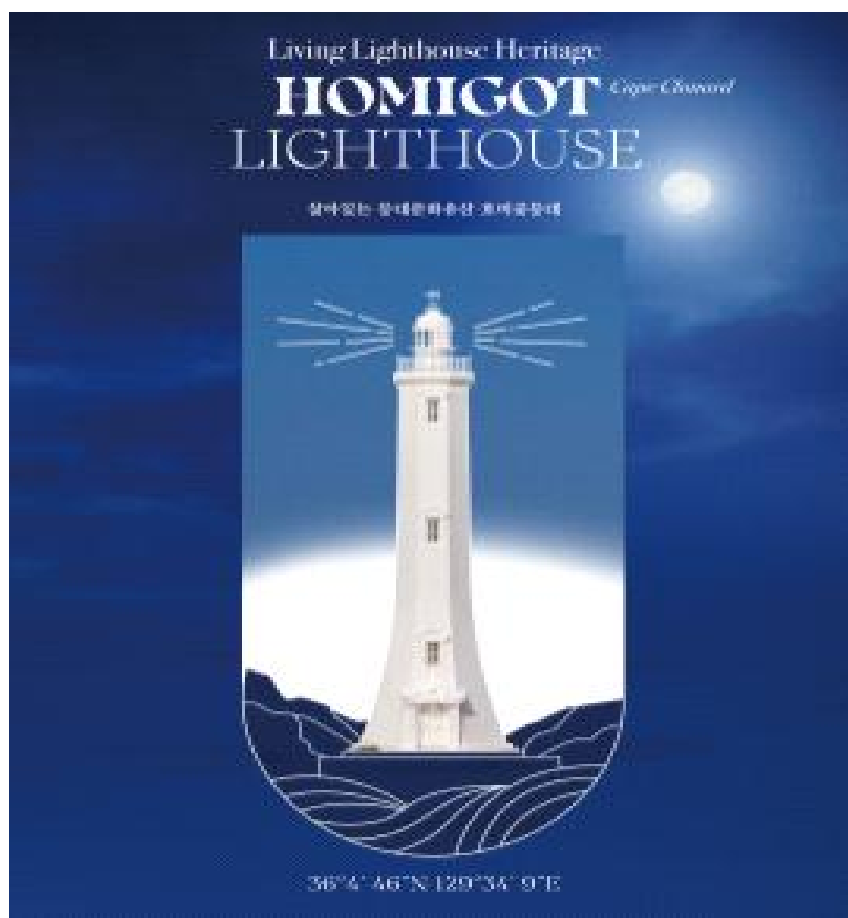
연도	등대명(국가명)	개요	비고
2019	 코르두앙등대 (프랑스)	· 16C 말 설치, 1724년 재건, 1790년 증축(60m) ·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 1823년 세계 최초로 프레넬렌즈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 UNESCO 세계 문화유산 지정(2021년)	
2020	 산토 안토니오 다 바라 등대 (브라질)	· 1697년 설치, 1839년 재건(현재) · 브라질, 아메리카, 남반구 해안에서 운영 중인 가장 오래된 등대 · 17C 아프리카 및 유럽행 항해 선박에게 가장 중요한 항구인 살바도르의 상징	
2021	 케이프 바이런 등대 (호주)	· 1901년 설치 · 등대와 함께 해양문화 복합건물(해양박물관, 기념품 판매점, 숙박시설 등) 운영 중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사용 · 호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방문객(50만명)이 많은 등대	
2022	 호미곶 등대 (대한민국)	· 1908년 설치 · 벽돌 조적 구조 중 가장 높은 등대(26.4m) 이나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지진피해 없음 · 문화재로 지정하여 원형 보존 및 현재까지 운영 중 · 대규모 등대박물관을 설치하여 교육 및 문화 행사 진행 활발(방문객 100만명)	



호미곶 등대 전경사진 1



호미곶 등대 전경사진 2



호미곶 등대 이미지